

한국어 비음종성[n] 발음 오류 분석: 파키스탄 학습자의 음운 체계를 중심으로

아만 올라
(상명대학교)

Ullah., Aman. (2019). A study of Korean final nasal consonant[n] pronunciation errors based on the vocal sound system of Pakistani student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2), 37-57. This study examined if Pakistani students can clearly pronounce three distinctive nasal constants of the Korean language or not. For the purpose, total 9 high frequent words from the vocal data of speaking exam which includes the nasal stop sounds of 20 Pakistani students were analyzed: 3 words are from one-syllable words which nasal sounds are (안, 꿈, 명), 3 words are from two-syllable words which nasal sounds in the first place are (안과, 담배, 종교) and 3 words are from two-syllable words which nasal sounds in the last place are (공원, 사람, 고향). The result showed that the Pakistani students can recognize and can clearly distinct and pronounce three nasal conflictive elements of Korean language. But, due to the influence of allophone rules of Urdu nasal alphabet ㅇ/noon/[n], some Pakistani students produced ㅇ[ŋ] sound with ㄴ[ɳ] and ㅁ[m] sound with ㄴ[ɳ]. Moreover, Pakistani students omitted final constant while uttering Korean sentences due to the non-existence of final constant in Urdu language. Based 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 suggested teaching methods of nasal stop sounds for Pakistani students. The result of this paper could be utilized as a basic data for developing the pronunciation education materials or finding the ways of pronunciation education for Pakistani students. Hereafter, I hope that this paper will play a tiny role in developing the language pronunciation education for Pakistani students.

주제어(Key Words): 비음종성(final nasal consonant), 우르두어 비음 특징(Urdu nasal characteristics), 1음절 비음종성(one-syllable word with nasal sound), 2음절 중 1음절비음종성(two-syllable word with nasal sound in first place), 2음절 어말비음종성(two-syllable word with nasal sound in last place)

1. 머리말

외국어 발음 교육에는 대조 분석 가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조 분석 가설은 두 언어 간 음운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어 교육에서는 양자 중에서 부정적 전이인 간섭을 더 중시한다. 간섭 현상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발생하는 음운 장애를 진단하고 그 결과 도출에 의해 효율적인 발음 교육 방안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음 교육에서 두 언어 간에 음운체계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학습자 모국어의 변별적 특성을 상대 언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아주 이상한 발음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 언어를 ‘잘못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강현화 외, 2003: 41). 그러므로 외국어 교육에서는 발음을 기초 단계부터 다루기 때문에 특정 집단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13여 년의 한국어 교육 역사를 가진 파키스탄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키스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육 관련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특히 음운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장경미(2009)는 최초로 파키스탄의 공용어인 우르두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하여 양국 언어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냈다. 그는 한국어 비음에는 삼중대립 「/ㄴ/[n], /ㅁ/[m] /ㅇ/[ŋ]」이 있다고 하는 반면 우르두어 비음에는 이중대립 「ɔ/noon/[n], ʃ/meem/[m]」이 있다고 하여, 한국어 /ㅇ/[ŋ]에 해당하는 우르두어 음소가 존재하지 않아 파키스탄 학습자가 이를 발음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우르두어의 유성 연구개 파열음 「s/gaaf/[g]」 앞에 치조음 비음 「ɔ/noon/[n]」이 결합될 때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 연구개 비음인 /ㅇ/[ŋ]과 유사한 발음을 할 수 있어 발음 교육할 때 이를 활용하여 비음의 최소 대립쌍을 학습자에게 제시하면 학습자가 /ㅇ/[ŋ]과 유사한 발음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상의 구어 발화 상황에서 파키스탄 학습자가 /ㅇ/[ŋ]과 유사한 발음을 할 수 있는지와 음절의 음소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¹⁾에서 /ㅇ/[ŋ]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박해연(2013)은 실제 발음 자료를 통해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의 비음 /ㄴ/[n]과 /ㅇ/[ŋ]을 많이 혼용한다는 점을 밝혔고, 우르두어의 치조음 비음 ɔ[n]은 상황에 따라 변이음 현상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는 한국어의 /ㄴ/[n]도 아니고, /ㅇ/[ŋ]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비음 소리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파키스탄 학습자가 어떤 상황에서 우르두어의 치조음 비음 ɔ[n]의 변이음 현상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다.

우르두어 비음에 대한 다른 논의는 Ayesha Zia(2002), Syed Mustafa Shah(2002), Kashif Munir 외(2003), Agha Ali Raza 외(2004)가 있는데, 이 논의들에서는 [ŋ]에 해당하는 우르두어

1) 음절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종성을 발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지 밝혀내지 않았다.

발음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Ayesha Zia(2002)에서 우르두어의 치조음 비음 $\text{ɲ}[n]$ 은 자모 결합에 따라 변이음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유성 연구개 파열음 $\text{/gaaf/}[g]$ 앞에 결합될 때 $\text{/gaaf/}[g]$ 를 무성으로 하여 연구개 비음 $[n]$ 의 소리를 낸다고 하였다. Syed Mustafa Shah(2002)와 Agha Ali Raza 외(2004)의 견해도 Ayesha Zia(2002)와 동일하다. 그러나 Kashif Munir 외(2003)에서는 치조음 비음 $\text{ɲ}[n]$ 은 유성 연구개 파열음 $\text{/gaaf/}[g]$ 앞에 결합될 때 $\text{/gaaf/}[g]$ 를 무성으로 하지 않은 채로 연구개 비음 $[n]$ 의 발음을 하지만, 연구개 파열음 $\text{/gaaf/}[g]$ 의 길이만 짧아질 뿐 이를 무성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파키스탄 학습자가 실제로 구어 발화 상황에서 한국어의 삼중대립 비음중성 「/ㄴ/[n], /ㅁ/[m], /ㅇ/[ŋ]」 발음을 변별 요소로 인식하여 위치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파키스탄 너물대학교 한국어학과 초급 단계 이수자나 재학생 중 20명 학습자의 성취도 평가 자료를²⁾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화이트만(Whiteman)³⁾은 대조 분석을 위한 절차로 먼저 대조 분석하고자 하는 언어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대조하기 위한 항목 설정, 그리고 양 언어의 구조상 비교를 통해 양 언어 구조의 유사성과 차이점의 대조로 오류를 측정하는 총 4개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발음 자료 분석에 앞서 우르두어의 음운 체계, 특히 비음의 변이음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2장에서는 우르두어의 음운 체계와 치조음 비음 $\text{ɲ}[n]$ 의 변이음 현상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연구 대상, 음성 자료와 연구 방법, 4장에서는 학습자의 발음 자료를 분석하여 발음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앞에서 밝힌 결과를 토대로 파키스탄 학습자를 위한 비음중성 발음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우르두어 음운 체계

우르두어 음운 체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아직까지 결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우르두어의 음소 수를⁴⁾ 달리 제시하고 있는데 Sarmad Hussain(2004)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르두어의 기본 자음 수를 37개, 파생된 자음 4개로 총 41개의 자음을 제시하여, 치조음 비음 「 $\text{ɲ}/\text{noon}/[n]$ 」의 변이음 현상의 음소를 인정하면서 총 음소는 44개, 모음 소리는 17개로 총 자모 소리는 61개로 정리하였다. 또한 Sarmad Hussain(2004)에

2) 성취도 평가 자료란 각 어학기관에서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자료를 말한다.

3) 강현화 외(2003), ‘대조분석론’에서 재인용하였다.

4) Sarmad Hussain(2004)은 우르두어의 자음 소리는 44개, 모음 소리는 17개라고 설명하였다. 장경미(2009)는 우르두어 자음 발음 33개와 모음 중 단모음 발음 3개, 장모음 5개와 이중모음 2개를 다루었다. 박해연(2013: 427)은 우르두어의 자음 음소는 42개, 모음 음소 10개라고 소개하였다.

아만 올라

서는 예문을 통해⁵⁾ 우르두어의 기본 음소 IPA 차트, 이중성격⁶⁾을 가진 음소, 모음화 현상, 유기음 현상 등을 자세하게 다루므로써 우르두어의 복잡한 음운 체계를 보다 쉽게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Sarmad Hussain(2004)가 분류한 우르두어의 총 음소를 기준으로 우르두어의 자모 IPA 차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1. 우르두어 자음 IPA

구분		양순음	순치음	치조음	경구개 치조음	경구개 음	연구개 음	구개음	성문음
파열음	무성	유기	[p ^h]	[t ^h]	[T ^h]		[k ^h]		
		무기	[p ']	[t ']	[T ']		[k ']	[q]	[ʔ]
	유성	유기	[b ^h]	[d ^h]	[D ^h]		[g ^h]		
		무기	[b]	[d]	[D]		[g]		
파찰음	무성	유기				[tʃ ^h]			
		무기				[tʃ ']			
	유성	유기				[dʒ ^h]			
		무기				[dʒ]			
마찰	유기		[v]	[z]	[ʒ]		[g/ɣ]		
		무기	[f]	[s]	[ʃ]		[kh]	[h]	
	유기	활음				[j]			
		유기				[j ^h]			
유음	탄설음			[r]	[R ^h]				
	유기음				[r ^h]				
	설측음			[l]	[R]				
	유기음				[l ^h]				
비음		[m]		[n]			[ŋ]		
유기음		[m ^h]		[n ^h]					

표 2. 우르두어 모음 IPA 차트

단모음	[ə], [ɪ], [ɔ]
장모음	[a], [o], [ɔ], [u], [e], [æ], [i]
장비음모음	[ā], [ō], [ǔ], [ū], [ē], [æ̃], [ī]

우르두어의 자음 음소는 44개로 한국어의 자음 음소 19개보다 2배 이상인 반면 모음 음소는 17개로 한국어 모음 음소 21개보다 적다. 그러나 우르두어 자음은 한국어 자음 체계의 모든 조음 위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 자음 발음 시 조음 위치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장경미(2009)

우르두어 음운 체계에서 조음 방법은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과 공명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더 세분화하면 우르두어 자음 음소는 성대의 진동에 따라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나눌 수 있고,

5) 우르두어 음운 체계에 대한 다른 논의에서의 음소 제시는 학자의 주장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이중성격의 음소란 자모 결합에 따라 자음이 될 수도 있고, 모음이 될 수도 있는 음소를 말한다.

이를 또 다시 기(氣)의 여부에 따라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눌 수 있다. 반면 한국어는 평음, 경음과 격음의 대립만 있다.

우르두어 음소 목록에도 원래 비음 [ŋ]이 없었지만 특수음소 「ɔ/noon/[n]」의 변이음 현상으로 우르두어에서 연구개 비음 [ŋ]의 발음이 가능하므로 파키스탄 국립우르두어연구기관인 ‘Center for the research in Urdu language processing’의 2007년 보고서에서 우르두어 치조음 비음 ɔ[n]과 연구개 파열음 ɟ[g]의 결합으로 비음 ɟ[ŋ]을 별도의 음소로 인정하여 우르두어 음소 목록에 ɟ[ŋ]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우르두어 비음 「ɔ/noon/[n]」의 변이음 현상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아 우르두어에서 비음 변이음 현상은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발음 시 파키스탄 학습자의 모어 L1의 간섭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르두어 비음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르두어 비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2. 비음ɔ[n]의 특징

우르두어의 비음 ɔ[n]은 주변 자모와 결합에 따라 변이음 현상을 나타내는데 Ayesha Zia(2002)에서는 우르두어 사전⁷⁾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525개 단어⁸⁾를 선정하여 우르두어 원어민 5명의 소리를 녹음하여 Praat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음의 변이음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우르두어 비음의 변이음 현상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비음 ɔ[n]에 의한 모음 비음화 현상, 둘째 비음 ɔ[n]에 의한 양순음 비음화 현상, 셋째 비음 ɔ[n]에 의한 연구개음 비음화 현상이 그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2.2.1. 모음의 비음화 현상

우르두어에는 다른 모음과 달리 장모음[a, o, ɔ, u, e, æ, i]만 비음 ɔ[n]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비음화 현상을 나타낸다. 우르두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비음은 선-후행하는 장모음[a, o, ɔ, u, e, æ, i]에 결합되면 장모음은 비음의 영향을 받아 역행동화 규칙에 의한 비음화 현상을 나타낸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도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quad \text{장모음} + n \rightarrow \eta$$

규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르두어 장모음[a, o, ɔ, u, e, æ, i]은 치조음 비음[n]에 결합될 때 비음화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르두어에서 단어 어두나 어중에서 장모음이 비음[n]에 결합되면 장모음과 비음[n] 사이에서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단어 어말에서 치조음 비음[n]은 앞에

7) *Feroz ul loghat urdu jadeed New Edition 2002*

8) 사전 순으로 비음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말한다.

아만 올라

오는 장모음[a, o, ɔ, u, i]⁹⁾에 결합되면 뒤에 오는 비음[n] 음소의 소리가 무성이 되어 앞에 오는 장모음에서만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전자는 [ghu ~ nt]라는 우르두어 단어 어중에서 치조음 비음[n]은 앞의 장모음[u]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u ~ n] 사이에서 역행동화로 인해 비음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후자는 [d₃aδ:]라는 단어 어말에서 치조음 비음[n]은 앞에 장모음[o]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비음[n] 음소의 소리가 무성으로 되어 앞에 오는 장모음[o]에만 비음화 [δ:]¹⁰⁾ 현상이 나타난다.

2.2.2. 양순음 비음화 현상

우르두어 치조음 비음 ɳ[n]은 양순음[p^h, p', b^h, b]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변이음 현상을 나타낸다. 치조음 비음[n]은 양순음 자음 앞에 결합될 때 치조음 비음[n]은 양순음 비음[m]으로 발음하게 된다. 우르두어에서 양순음 비음은 [ʔ/meem/[m]]인데 단어에서 양순음 자음이 비음[n] 뒤에 결합될 때 치조음 비음[n]은 비음화 규칙으로 인하여 양순음 비음[m]으로 발음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quad n + \text{양순음} \rightarrow m$$

규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르두어 양순음[p^h, p', b^h, b]은 치조음 비음[n]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비음화 현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anbar]라는 단어에서 치조음 비음[n]은 뒤에 오는 양순음 /b/에 결합될 때 [anbar]는 [ambar]로 발음하게 된다. 즉, 치조음 비음[n]은 양순음 비음[m]으로 발음하게 된다.

2.2.3. 연구개음 비음화 현상

우르두어 비음[n]은 연구개음¹¹⁾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변이음 현상을 나타낸다. 치조음 비음[n]은 연구개음 앞에 결합될 때 연구개음 비음[ŋ]으로 발음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칙은 다음과 같은 도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quad n + \text{연구개 파열음} \rightarrow \eta$$

9) 우르두어 장모음 중/e, æ/는 문장 어말에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다른 자모를 결합할 수 없다.
 10) 박해연(2013)에서 지적한 파키스탄 학습자의 /L/[n]도 아니고 o/[ŋ]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소리라는 것은 이와 같은 규칙에서 생기는 비음화/δ:/ 소리가 아닐까 싶다.
 11) 우르두어 연구개음은 성대의 진동에 따라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눌 수 있다. 우르두어 무성 연구개음[k^h, k']은 비음[n]에 결합될 때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유성 연구개음[g^h, g]은 비음[n]에 결합될 때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비음[n]은 비음[ŋ]으로 발음하게 된다.

규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르두어 연구개 파열음[gh, g]은 치조음 비음[n]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비음화 현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rang]라는 우르두어 단어에서 비음[n]은 연구개 파열음[g]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치조음 비음[n]은 연구개 비음[ŋ]으로 나타내 [raŋg]로 발음하게 된다. 즉, [ng]에서 치조음 비음[n]은 연구개 비음[ŋg]으로 발음하게 된다.

우르두어의 비음ɔ[n]은 주어진 상황에서만 비음화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변이음 현상은 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르두어 음운 체계를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 비음의 삼중대립을 변별 요소로 인식해서 발음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앞과 같은 규칙의 영향으로 한국어 비음종성에서 비음 삼중대립 「/ㄴ/[n], /ㄹ/[m], /ㅇ/[ŋ]」의 소리를 변별해서 그 음가대로 발음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파키스탄 너물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초급 단계 학습자들로 총 20명이다. 모든 참여자 다 파키스탄의 공용어인 우르두어를 모어로 사용하며 이슬라마바드 본 원¹²⁾ 너물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6개월 이상 한국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¹³⁾이다. 연구 참여자 명단은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12) 너물대학교 본원은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라치, 라호르, 페슬라바드와 피샤와르라는 대도시에 캠퍼스가 있다.

13) 파키스탄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취업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는 너물대학교 한국어학과 산하에 운영되는 세종학당에서 세종학당1(초급1), 세종학당2(초급2)를 수료한 학생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한국어표준교재’를 다 배움으로써 한글 자모의 음가는 물론이고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표 3. 참여자의 명단

번호	참여자	성별 ¹⁴⁾	학습 기간	국어	학습 목적
1	참여자1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2	참여자2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3	참여자3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4	참여자4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5	참여자5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6	참여자6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7	참여자7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8	참여자8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9	참여자9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10	참여자10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11	참여자11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12	참여자12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13	참여자13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14	참여자14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15	참여자15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16	참여자16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17	참여자17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18	참여자18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19	참여자19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20	참여자20	남학생	3~6개월	우르두어	취업목적

3.2. 분석 자료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한국어 자음 소리는 파키스탄 학습자의 비음종성 발음이다.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 비음종성 「/ㄴ/[n], /ㄹ/[m], /ㅇ/[ŋ]」 발음의 변별 요소를 인식해서 위치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특히 /ㅇ/[ŋ]과 /ㄴ/[n] 발음을 변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 발음 환경을 구분하여 1음절 비음종성 단어, 2음절 중 1음절비음종성 단어와 어말비음종성 단어를 선정하였다.

단어를 선정하기 위해 본원 파키스탄 니몰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초급 단계 학습자 50명의 성취도 평가 자료¹⁵⁾를 분석하여, 각 학습자의 말하기 시험 녹음 파일을 직접 듣고 내

14) 취업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남학생이다.

15) 참여자에게 무의미한 단어를 제시하고 발음 오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취하면 실험결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무의미한 단어를 선정하는 기준, 실험에 활용할 녹음기, 주파수 범위, 교실 환경 등을 고려해서 직접 발음을 녹음하는 데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하여 1차적으로 학습자의 실제 성취도 평가 자료에서 비음종성 단어 중 빈도수가 높은 단어(인접한 조사까지 포함)를 선정하여 발음 오류를 측정하고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무의미한 단어를 선정하고 발음 오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발음 오류 측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용을 글로 전사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 비음종성이 포함된 모든 단어를 따로 정리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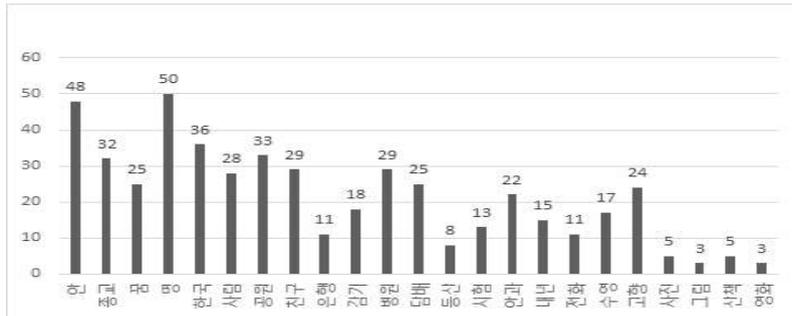


그림 1. 비음종성이 포함된 어휘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50명의 성취 평가 자료에서 종성에 비음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총 23개가 추출되었다. 추출된 단어의 발음 환경을 구분하여 1음절 비음종성 단어 [안(48번), 꿈(25번), 명(50번)], 2음절 중 1음절비음종성 단어[종교(32번), 한국(36번), 친구(29), 은행(11), 감기(18), 담배(25), 등산(8), 안과(22), 전화(11), 산책(5), 영화(3)]와 어말비음종성 단어 [사람(28), 공원(33번), 병원(29), 시험(13), 내년(15), 수영(17), 고향(24), 사진(5), 그림(3)]을 분류한 다음에 참여자가 동일한 단어를 발화한 기준으로 20명 참여자의 음성 자료만 분석 자료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자료에서 빈도수가 제일 높은 총 9개 단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0명의 학습자가 동일한 단어를¹⁶⁾ 발화한 1음절 종성에 비음[ㄴ/[n], /ㄹ/[m], /ㅇ/[ŋ]]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 3개, 2음절 중 1음절 종성에 비음[ㄴ/[n], /ㄹ/[m], /ㅇ/[ŋ]]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 3개와 2음절 어말종성에 비음[ㄴ/[n], /ㄹ/[m], /ㅇ/[ŋ]]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 3개를 추출하여,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단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분석 대상으로 삼은 어휘

구분	1음절	2음절 중 1음절	2음절 어말
종성 /ㄴ/[n]	안	안과 ¹⁷⁾	공원
종성 /ㄹ/[m]	꿈	담배	사람
종성 /ㅇ/[ŋ]	명	종교	고향

16) 참여자의 말하기 성취도 평가 자료 특성상 종성에 비음 소리가 들어가 있는 3음절 단어가 많지 않아 분석 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1음절과 2음절 단어에만 한정하여 비음종성 발음 오류 양상을 규명하기로 한다.

17) 2음절 중 1음절비음종성 단어에서 빈도수로 제일 높게 나온 단어가 ‘한국(36번)’과 친구(29번)이었으나 일상

3.3. 분석 방법

음성 파일에서 앞과 같은 분석 대상이 되는 9개 단어의 어절을 잘라서¹⁸⁾ 한국어 평가자¹⁹⁾ 10 명에게 발음 관련 피드백을 받았다. 평가자에게 비음중성 발음이 포함된 180개 자극음(20명 × 단어 9개)을 들려주고 평가자가 들은 자극음의 총 1800개 문항(평가자 10명 × 자극음 180개)에 대한 답을 수집하였다. 한국어 평가자는 한국어 원어민 교육자로서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현재 서울 시내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 재직 중이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평가자의 명단

구분	평가자	성별	경력	출신 지역
1	평가자1	남	6년 이상	서울
2	평가자2	남	5년 이상	서울
3	평가자3	남	7년 이상	경기도
4	평가자4	남	5년 이상	서울
5	평가자5	남	5년 이상	서울
6	평가자6	여	5년 이상	경기도
7	평가자7	여	7년 이상	경기도
8	평가자8	여	5년 이상	서울
9	평가자9	여	6년 이상	서울
10	평가자10	여	5년 이상	경기도

발음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10명의 평가자에게 음성 자료를 직접 들려주고 평가자가 들리는 대로 단어의 발음 형태를²⁰⁾ 분석표에 전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평가자가 단어의 발음 형태를 분석

구어 발화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도 [한국]을 [항국]으로, [친구]는 [칭구]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음절 중 1음절비음중성 단어에서 그 다음으로 빈도수로 높게 나온 단어인 ‘안과(22명)〈ophthalmic clinic〉’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8) 평가자에게 녹음 파일을 제공하기 전에 내용의 문맥 추론을 고려하여 문맥을 제외하여 단어만 따로 잘라서 음성 파일로 정리하였다. 단, 조사가 결합된 일부 단어를 조사와 함께 자르며, 연음 규칙으로 인해 참여자의 연음 발음까지 고려해서 단어의 발음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즉, 평가자가 ‘꿈이’라는 단어를 판정할 때 발음이 [꾸미]로 들리면 그것은 오류로 보지 않았다. 또한, 평가자의 직업특성과 빈출어휘를 고려하여 음성 파일에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겼고, 한 폴더에 모든 파일을 다 담은 뒤 평가자에게 음성 파일은 무작위로 들리도록 하였다.

19) 평가자는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구사한다. 또한, 평가자가 직관대로 자료를 한번 듣고 잘못된 발음으로 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자에게 참여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들리도록 소음이 없는 빈 교실을 마련해 주었고 자료를 반복하게 들리도록 하였다.

20) 학습자가 어떤 단어로 발음하고 있는 것 같은지 그 형태를 판정하여 전사하도록 하였다.

표에 전사한 다음 직접 그 분석표를 받아 평가자가 전사한 단어 발음 형태 중 오류가 있는 발음 형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발음 오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받은 자료 각 자극음의 평균값을 내고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4. 결과와 논의

4.1. 비음종성 발음[n]

비음종성 /ㄴ/[n]의 발음 오류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종성에 비음 /ㄴ/[n] 소리가 들어가 있는 1음절 단어 ‘안’, 2음절 중 1음절종성에 /ㄴ/[n]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 ‘안과’와 2음절 어말종성에 /ㄴ/[n]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 ‘공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4.1.1. 1음절 [안]

비음종성 ㄴ[n] 소리가 들어가 있는 1음절 단어 ‘안’을 분석한 결과 비음 /ㄴ/[n]의 종성 발음 오류 발생 비율은 7%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우르두어 비음 특징 측면에서 규명하면 우르두어 비음 특징에서 비음 [n]은 앞에 오는 장모음[a, o, ɔ, u, e, æ, i]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역행 동화에 의해 비음화 현상을 나타낸다.

우르두어의 비음화 규칙을 한국어 ‘/안[an]’과 대조해 보면 한국어 ‘/ㅏ[a]’는 단모음이므로 우르두어 음운 체계를 가진 학습자가 ‘/안[an]’을 발음할 때 비음화 현상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발음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4.1.2. 2음절 중 1음절 [안과]

비음종성 /ㄴ/[n] 소리가 어두에 들어가 있는 2음절 단어 ‘안과’를 분석한 결과 비음 /ㄴ/[n]의 종성 발음 오류 발생 비율도 4%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우르두어 비음 특징 측면에서 규명하면 우르두어 비음 특징에서 치조음 비음 [n]은 뒤에 오는 유성 연구개 파열음[gh, g]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동화 규칙에 의해 연구개 비음[ŋ]으로 발음하게 된다.

우르두어의 비음화 규칙을 한국어 단어 ‘/안과[an'kwa]’와 대조하면 한국어 평음 /ㄱ/[k, g]은 조음 위치 면에서 연구개음임에도 우르두어 음운 체계를 가진 학습자가 ‘/안과[an'kwa]’를 발음할 때 비음화 현상의 간섭²¹⁾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안과[an'kwa]’를 발음할 때 ‘/안과[angwa]’로 비음종성인 /ㄴ/[n]의 오류 양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1) 파키스탄 학습자도 한국 사람처럼 한국은 [항국]으로 친구는 [창구]로 발음하지만 이외에 비음화 현상이 일반적이지 않은 한국어 단어를 발화할 때 모국어의 비음화 현상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4.1.3. 2음절 어말 [공원]

비음종성 /ㄴ/[n] 소리가 어말에 들어가 있는 2음절 단어 ‘공원’을 분석한 결과 비음 /ㄴ/[n]의 종성 발음 오류 발생 비율은 1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우르두어 비음의 측면에서 규명하면 우르두어 비음 [n]은 앞에 오는 장모음[a, o, ɔ, u, e, æ, i]에 결합되면 역행 동화에 의해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르두어의 비음화 규칙을 한국어 단어 ‘/공원/[konguʌn]’과 대조해 보면 파키스탄 학습자가 2음절 어말종성에서 비음 /ㄴ/[n] 소리를 낼 때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공원’을 발음할 때도 오류 양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괄목할 만한 점이다.

4.2. 비음종성 발음[m]

비음종성 /ㅁ/[m]의 발음 오류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종성에 비음 /ㅁ/[m] 소리가 들어가 있는 1음절 단어 ‘꿈’, 2음절 중 1음절 종성에 /ㅁ/[m]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 ‘담배’, 2음절 어말 종성에 /ㅁ/[m] 소리가 들어있는 단어 ‘사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4.2.1. 1음절 [꿈]

비음종성 /ㅁ/[m] 소리가 들어 있는 1음절 단어 ‘꿈’을 분석한 결과 비음 /ㅁ/[m]의 종성 발음 오류 발생 비율은 35%로 나타났으나 54%에 달하는 이 ‘꿈’은 뒤에 조사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연음 규칙을 과잉 적용하여 1음절을 2음절로 잘못 발음하는 오류 양상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양순음 위치에 오는 양순음 비음 [m]은 파키스탄 음운 체계에 존재하므로 파키스탄 학습자가 종성에 위치한 [m] 소리를 낼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르두어의 비음화 규칙을 한국어 /꿈/[k'um]과 대조해 볼 때 한국어 비음 ㅁ[m]이 조음위치 면에서 우르두어와 동일한 위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학습자가 종성의 /ㅁ/[m] 소리 발음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꿈/[k'um]이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뒤에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꿈/[k'um]은 /꿈이/[k'umi] 또는 /꿈은/[k'umun]으로 그 발음 형태가 바뀌게 된다. 이는 우르두어에 종성 발음이 존재하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의 파키스탄 학습자가 연음 규칙²²⁾을 과잉 적용하여 1음절 /꿈/[k'um]에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 이를 3음절 단어 /꾸미가/[k'umiga] 또는 /꾸미는/[k'umunun]으로 잘못 발음하는 오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22) 본 연구는 파키스탄 학습자의 비음종성 발음 오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연음 규칙 오류 등에 대한 분석은 후속연구로 미룬다.

4.2.2. 2음절 중 1음절 [담배]

비음종성 /ɔ/[m] 소리가 어두에 들어있는 2음절 단어 ‘담배’를 분석한 결과, 비음 /ɔ/[m]의 종성 발음 오류 발생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우르두어 비음의 변이음 측면에서 결과를 규명하면 우르두어 비음의 변이음 특징에서 양순음 비음 [m]은 양순음[p^h, p, b^h, b]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 학습자가 이를 음가대로 발음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치조음 비음 [n]은 뒤에 오는 양순음[p^h, p, b^h, b]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동화 규칙에 의해 양순음 비음 [m]으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우르두어의 비음화 규칙을 한국어 /담배/[tambɛ] 단어와 대조할 때 우르두어 양순음 비음 /ɔ/[m]은 양순음[p^h, p, b^h, b]하고 동일한 위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키스탄 학습자가 /ɔ/[m]을 그 음가대로 발음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가 치조음 비음 [n]과 양순음 비음[m]을 혼동하여 ‘담배/[tambɛ]를 /단배/[tanbɛ]로 잘못 발음할 것으로 나타났다.

4.2.2. 2음절 어말 [사람]

비음종성 /ɔ/[m] 소리가 어말에 들어가 있는 2음절 단어 ‘사람’을 분석한 결과 비음 /ɔ/[m]의 종성 발음 오류 발생 비율은 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르두어 비음의 변이음 측면에서 규명하면 이 결과를 규명할 때 양순음 비음 [m]은 파키스탄 학습자에게 익숙한 발음이므로 파키스탄 학습자가 종성에서 [m] 소리를 발음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조음 비음 [n]은 뒤에 오는 양순음[p^h, p, b^h, b]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동화 규칙에 의해 양순음 비음[m]으로 발음하게 된다. 또한 우르두어의 비음화 규칙을 한국어 단어 /사람/[s^haram]과 적용해 볼 때 한국어 양순음 비음 /ɔ/[m]은 우르두어 음운 체계에도 존재하여 파키스탄 학습자가 종성에서 /ɔ/[m]을 발음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4.3. 비음종성 발음[ŋ]

비음종성 /ɔ/[ŋ]의 발음 오류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종성에 비음 /ɔ/[ŋ] 소리가 들어있는 1음절 단어 ‘명’, 2음절 중 1음절에 /ɔ/[ŋ] 소리가 들어있는 단어 ‘종교’와 2음절 어말에 /ɔ/[ŋ] 소리가 들어있는 단어 ‘고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4.3.1. 1음절 [명]

비음종성 /ɔ/[ŋ] 소리가 들어있는 1음절 단어 ‘명’을 분석한 결과 비음 /ɔ/[ŋ]의 종성 발음 오류 발생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우르두어 비음 변이음의 측면에서 규명하면 [ŋ]에 해당하는 개별 음소가 존재하지 않으나 치조음 비음 [n]은 유성 연구개 파열음[g^h, g]에 결합되는

아만 올라

과정에서 연구개 비음[ŋ]의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연하면 비음 [ŋ]은 파키스탄 학습자에게 아주 낯선 발음이 아니다.

그리고 우르두어의 비음화 규칙을 한국어 단어 '/명/[myʌŋ]'과 대조해 보면 우르두어에서 비음 ɔ[n]은 유성 연구개 파열음 앞에 결합될 때 ɔ[n]으로 발음되는데 경우에 따라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 1음절 단어에서 /o/[ŋ]을 /ɾ/[n]으로 잘못 발음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습자가 1음절 비음종성 단어에서 /o/[ŋ]을 발음할 수 있다.

4.3.2. 2음절 중 1음절 [종교]

비음종성 /o/[ŋ] 소리가 어두에 들어가 있는 2음절 단어 '종교'를 분석한 결과 비음 /o/[ŋ]의 종성 발음 오류 발생 비율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르두어의 비음화 규칙을 한국어 단어 '/종교/[tsoŋgyo]'와 대조해 볼 때 한국어 무성음 평음은 /ㄱ/[k,g]는 조음위치 면에서 연구개 음이므로 우르두어 음운 체계를 가진 학습자가 '/종교/[tsoŋgyo]'를 발음할 때 L1 비음화 현상의 간섭을 받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파키스탄 학습자가 '/종교/[tsoŋgyo]'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o/[ŋ]은 그 음가대로 발음을 할 수 있으나, 일부 파키스탄 학습자가 비음화 규칙의 적용 없이 '/종교/[tsoŋgyo]'를 /존교/[tsongyo]로 잘못 발음하는 오류 양상을 보였다.

4.3.3. 2음절 어말 [고향]

비음종성 /o/[ŋ] 소리가 어말에 들어있는 2음절 단어 '고향'을 분석한 결과 비음 /o/[ŋ]의 종성 발음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우르두어 비음의 변이음 측면에서 규명하면 [ŋ]에 해당하는 개별 음소가 존재하지 않으나 치조음 비음 [n]은 유성 연구개 파열음[gh, g]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ŋ]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르두어의 비음화 규칙을 한국어 '고향[kohyaŋ]'과 대조할 때 우르두어에서 비음 [n]은 유성 연구개 파열음 뒤에 결합될 때 [ŋ]으로 소리를 낸다. 즉,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 2음절 단어 어말에서 [ŋ] 소리를 발음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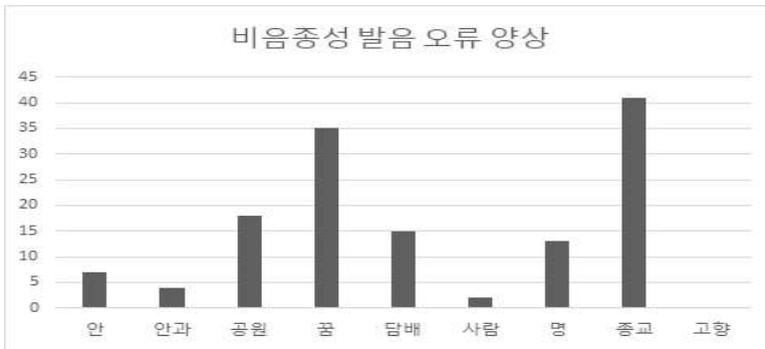


그림 2. 파키스탄 한국어 학습자의 비음종성 발음 오류 양상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 비음종성 발음 시 오류 양상이 제일 높게 나온 단어는 2음절 어말 단어인 종교(41%)였고, 그 다음으로는 1음절 단어인 꿈(35%)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18%), 담배(15%)와 명(13%)의 순위로 이었다. 한편, 파키스탄 학습자가 안(7%), 안과(4%), 사람(2%)과 고향(0%) 단어를 발음할 때 오류 양상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파키스탄 학습자의 이 발음 오류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부분의 파키스탄 학습자가 우르두어의 비음 이중대립체계의 영향으로 한국어 $o[n]$ 을 $l[n]$ 과 혼동하여 쓰고 있다.
- (2) 파키스탄의 공용어인 우르두어에 종성이 존재하지 않아 학습자가 문장 단위로 한국어를 발화할 때 대부분의 학습자가 종성 발음을 생략하여 발음한다.
- (3) 한국어 2음절 단어의 인접한 모음의 발음이 비음종성의 정확한 발음에 영향을 미치므로 파키스탄 학습자가 이를 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4) 파키스탄 학습자가 우르두어의 비음 이중대립체계의 영향으로 한국어 $m[m]$ 을 $l[n]$ 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

파키스탄 학습자의 비음종성 발음 오류를 측정하고 이의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파키스탄 학습자의 비음종성 발음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비음종성 발음교육

5.1. 발음교육

한글 자모와 달리 한국어 발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는데 이는 한국어 발음에 음운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종성 자음이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을 때에도 “중화”라고 불리는 음운 변화가 일어나고, 모음이 올 경우에는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며, 자음이 올 경우에는 비음화, 유음화 등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분마릿 건너파, 2013: 95). 이런 이유들로 음운 체계가 전혀 다른 파키스탄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을 교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우르두어의 비음화 현상과 같은 특징 때문에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의 삼중 비음 종성의 발음을 위치에 따라 그 음가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파키스탄 초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의 비음종성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5.2. 비음종성

파키스탄 학습자는 우르두어 음운 체계상 표면적으로 이중비음대립 구조를 갖고 있으나 ɔ[n]의 비음화 현상의 특징으로 인해 한국어의 삼중비음종성을 발음할 때 별문제가 없을 것임을 본 연구에서 밝혀냈다. 다만, 일부 파키스탄 학습자가 ɔ[n]의 다양한 비음화 현상 때문에 /ɫ/[n]은 /o/[ŋ]으로, /o/[m]은 /ɫ/[n]으로 잘못 발음할 수 있고 우르두어에 종성 발음이 없는 관계로 학습자가 한국어를 문장 단위로 발화할 때 종성을 생략해서 발음하기도 하고 2음절 단어의 각 음절에 비음종성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이를 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파키스탄 학습자의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한국어의 비음 삼중대립인 /ɫ/[n], /o/[m], /o/[ŋ]의 발음을 파키스탄 초급 단계 학습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한 후 중급 단계에서 예문 제시를 통해 한국어 비음화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짧은 만큼 대부분의 학습자가 초급 단계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음종성 발음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2.1. 무의미 단어 말하기

초급 단계 학습자가 한글을 익힌 다음에 자모 결합을 통해 간단한 단어를 만드는 연습을 한다. 발음 교육은 무의미한 단어에서 유의미한 단어로, 그리고 문장에서 대화로 넓혀간다(장선미, 2015: 87).

따라서 파키스탄 학습자에게 먼저 무의미한 단어의 비음 종성 발음 연습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비음 자음이 들어있는 1음절 단어 3개를 한 세트르 제시한다. 이때 학습자는 원어면 화자의 녹음된 발음을 듣고 따라 읽는 연습을 하거나 원어면 교사의 발음을 직접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6. 무의미한 단어 예문

듣고 따라 읽기	
무의미한 단어	간 / 꺾 / 강
	난 / 남 / 낭
	안 / 암 / 앙
	인 / 임 / 잉
	준 / 줌 / 중

5.2.2. 유의미한 단어 카드를 이용하기

무의미한 단어 연습이 끝나면 교사가 유의미한 단어 카드를 이용해서 학습자에게 비음종성 발음을 더욱 심도 있게 교육할 수 있다. 단어 카드를 이용할 때 초급 단계에서 흔히 사용되거나 발음하기 쉬운 단어를 선정해서 발음 연습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때 교사가 교실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교사가 학습자에게 단어 카드를 제시해 주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그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이때 단어카드에 비음 종성 자음을 색칠하거나 비음종성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러한 연습 활동을 할 때 교사는 학습자에게 종성이 쓰인 1음절 단어를 먼저 제시해 주고 그 다음 2음절 단어를 제시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이외에 교사가 조별로 단어카드 게임을 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표 7. 유의미한 단어 예문

듣고/보고 따라 읽기	
유의미한 단어	곰 / 강 / 눈 / 산 / 줌 / 안 / 삼 / 방 / 밥
	/ 한국 / 친구 / 사람 / 교실 / 고향 / 공원 / 안과
	/ 감기 등 등

5.2.3. 모국어로 변환하기

파키스탄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비음 삼중대립인 「/ㄴ/[n], /ㄹ/[m], /ㅇ/[ŋ]」을 인식시킨 다음 비음종성 발음 중 제일 많이 혼동하는 /ㅇ/[ŋ]과 /ㄴ/[n] 및 /ㄹ/[m]과 ㄴ[n]을 예문을 통해서 설명한다. 이때 초급 단계 학습자에게 우르두어의 비음화의 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단어를 제시하고 이 단어의 발음을 우르두어로 변환해서 보여준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학습자에게 ‘안/an/’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이 발음은 우르두어로 ‘ان’/an/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암/am/’이라는 단어를 우르두어로 ‘ام’/am/, 그리고 ‘앙/aŋ/’이라는

아만 올라

단어를 우르두어로 'ا' /a ŋ /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단, 파키스탄 학습자가 단어 중 1음절에 강세를 주고 받음하는 특징을 염두에 두고 받음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 8. 모국어로 변환하기 예문

읽고/듣고 변환하기	
한국어 단어	우르두어로 변환하기
안/an/	/a'n/ان
암/am/	/a'm/ام
앙/a ŋ /	/a' ŋ /انگ
한국/hanguk/	/h'anguk/بان گوه
사람/s'aram/	/s'aram/سارم
고향/kohya ŋ /	/k'ohya ŋ /گوه يانگ

5.2.4. 단어에서 문장 단위로 나가기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우르두어에는 종성 발음이 존재하지 않으나 우르두어 단어 어말에는 자음이 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 학습자는 단어 하나하나를 받음할 때 종성발음을 잘할 수 있으나 문장 단위로 넘어갈 때에는 종성을 생략해서 받음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파키스탄 학습자에게 종성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교육시킨 다음에 비음이 들어있는 단어가 포함된 여러 개의 짧은 문장도 같이 제시하여 교육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단, 학습자의 학습 단계를 고려해 받음하기 쉬운 단어를 선정하여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표 9. 단어에서 문장 단위로 나가기 예문

단어	문장
꿈	저는 어제 꿈을 꾸었어요.
명	우리 가족은 모두 6명입니다.
종교	제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담배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공월	저는 매일 아침에 공원에서 산책해요.

6.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ㄴ/[n], /ㅁ/[m], /ㅇ/[ŋ]」 소리가 나타나는 1음절 비음종성과 2음절 중 1음절 비음종성 및 어말비음종성 어휘 항목에서 파키스탄 학습자가 비음종성 발음을 변별 요소로

서 위치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지와, 각각의 비음종성의 발음 오류와 오류 양상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르두어 비음의 특징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요약할 수 있다.

우르두어 음소에서 비음은 이중대립 「ɟ/noon/[n], ʃ/meem/[m]」의 체계이지만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의 비음종성 삼중대립 「/ɺ/[n], /ɹ/[m], /o/[ŋ]」을 변별 요소로 인식하여 발음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는 우르두어 음운 체계에서 특수음소 「ɟ/noon/[n]」의 변이음 현상으로 별도의 음소 [ŋ]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한국어 비음종성 o[ŋ] 발음은 파키스탄 학습자에게 익숙한 발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르두어의 치조음 비음 ɟ[n] 음소의 변이음 규칙은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 음소를 발음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 결과로 파키스탄 학습자가 한국어 음소를 발음할 때 우르두어 ɟ[n] 음소의 변이음 규칙의 영향을 받고, 경우에 따라 이를 과잉 적용하여 발음을 하는 오류 양상이 다수 나타났다. 그리하여 한국어 교육자가 본고에서 언급한 우르두어의 비음 특징을 충분히 습득한 후에, 사전에 학습자의 모어의 모음 특징의 간섭현상을 막고 발음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실제 한국어 성취도 평가 자료에서 한국어 발음 오류 환경과 발음 오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에 제한적인 어휘 선정과 분석 방법으로 인해 비음종성 발음 교육 자료와 체계적인 한국어 비음 종성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음종성 발음 교육 자료 개발과 효율적인 발음 교육 방안의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파키스탄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비음종성 발음교육 자료의 개발과 교육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향후 파키스탄 학습자의 충분한 비음종성 발음 데이터 구축과 함께 다른 자모 결합에 대한 발음 오류 환경과 그 원인 또한 규명되어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화·신자영·이재성·임효상. (2003). *대조분석론*, 도서출판 역락.
- 권성미. (2012). L1-L2 간 발음 규칙의 상이성에 따른 한국어 종성비음 습득 양상 연구. *우리어문 연구* 42, 63-90.
- 김태경·박초롱. (2014).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오류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 화* 55, 5-34.
- 박해연. (2013). 전략을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파키스탄 학습자를 대상으로. *20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는문집*, 427-438.

- 분마럿 건너파. (2013).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종성 발음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2016). *한국어 음운 정보: 현상과 규칙*. 푸른사랑사.
- 양환환. (2018).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비음/ㄴ, ㅇ/ 습득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숙·김영주. (2013). 브라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비음 발음 연구. *한국어학* 61, 261-281.
- 장경미. (2009). 파키스탄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미. (2015).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 발음 분석 및 교육 방안 연구 -영어권과 일본어권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용용. (2015). 대만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종성 발음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연. (2017). 중국인 학습자 비음 종성 /ㄴ/, /ㅇ/ 음절의 발음 오류 재고. *한국어교육* 28, 251-268..
- 전혜진·한정환. (2017). 실험적 분석을 통한 한국어 비음과 비음동화의 인지 양상. *Journal of Culture* 38, 101-130.
- 정현숙. (2014). 초급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종성 비음 발음 오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용·강현화·고명균·김미옥·김선정·김재옥 외 1인. (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 후 자이루. (2015). 중국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gha, A. R., Mansoor, P., & Waqas, I. (2004). Existence of Velar Nasal Stops in Urdu. Center for Language Engineering. Retrieved from http://www.cle.org.pk/Publication/Crulp_report/CR04_07E.pdf, 38-42.
- Aysha, Z. (2002). Assimilation and Dissimilation Rules in Urdu. Center for Research in Urdu Language Processing. Retrieved from http://www.cle.org.pk/Publication/Crulp_report/CR02_27E.pdf, 230-242.
- Kashif, M., & Tayyaba, M. (2003). Existence of Ingma in Urdu Language and its Phonological Features. Center for Language Engineering. Retrieved from http://www.cle.org.pk/Publication/Crulp_report/CR03_08E.pdf, 47-51.
- Sarmad, H. (2004). Letter-to-Sound Conversion for Urdu Text-to-Speech System. Center for Research in Urdu Language Processing. Retrieved from

<http://delivery.acm.org/10.1145/1630000/1621823>, 74-79.

Syed, M. S. (2002). Urdu Nasal Consonants and their Phonological Behaviour. Center for Language Engineering. Retrieved from http://www.cle.org.pk/Publication/Crulp_report/CR02_16E.pdf, 133-140.

아만 올라

03016 서울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일반대학 한국학과 대학원생
이메일: amanpks2@naver.com

Received on January 30,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30, 2019

Accepted on June 30, 2019